

디자인의 의미부여로 인한 파지기간의 지속성(1)

The continuation of recognition period conceding meaning to the design(1)

오은하 김현정

이재석 정도성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

Oh, Eun-Ha Kim, Hyen-Jung

Yi, Jae-Seok Jung, Do-S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TED, Kookmin University

• Key words: Conceding meaning , Recognition period

1. 서론

1-1. 연구배경

기억(memory)이란 정보(information)의 입수(input) - 처리(processing) - 고정(consolidation) - 저장(storage) - 회수(retrieval)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저장되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것은 기억이라 보기가 곤란하다.¹⁾

기억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감각기억·단기기억·장기기억으로 나뉜다. 경험한 것을 수초동안만 의식 속에 유지해 두는 것을 단기기억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에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동안만 기억되는 것이 단기기억 작용이며, 이러한 단기기억의 반복 습득을 통해 이전의 자기 집 전화번호를 장기간에 걸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장기기억 작용이다. 단기기억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숫자나 문자, 단어의 경우 약 7개 정도가 그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를 기억의 범위(memory span)라고 한다.

또한 과거의 사건이나 학습내용을 기억작용을 통해 인출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한다.

망각의 원인으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듯이 쓰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 되거나 기억된 사항에 다시 새로운 사항이 끼어들고 간섭을 함으로 기존의 기억사항이 혼동을 일으켜 망각하게 된다.

이러한 기억 특성을 통해 제품들의 지속적 파지기간과 친근감을 증대시키는 디자인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상을 인식하고, 주의 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등의 인지적 활동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앎은 인간이 각종 생활 장면 내에서 외적 환경 자극과 내적 자극에 대하여 앎을 획득하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산출해 내는 심적 활동이다.

실제 디자인 행위 속에는 사용자에게 대한 이해보다는, '어떻게'라는 방법과 시각을 통해 확인되는 조형의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한다.²⁾

본 연구는 사용자(소비자)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장기적 기억

의 파지기간과 단기적 파지기간의 요인이 좀더 친근감을 높이는데 요구되는 제품의 디자인 의미부여 방법의 중요성과 제품미다의 기능적 측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2. 의미부여의 중요성

작업기억에서 처리된 결과는 망각되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처리, 되뇌임과 의미덩이 만들기 등의 정신적 노력을 통해 장기기억에 저장될 수 있다. 장기기억은 중다기억 이론에서 보면 기억을 구성하는 구조이지만, 작업기억에서 일어나는 심적 과정의 결과에 따라 기억되는 양상이 달라진다.³⁾

성공적인 파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되뇌임의 양이 아니라 항목을 약호화(의미덩어리)할 때 수행된 조작의 종류이다.

초기 정보처리과정에서는 물리적 세부 특징들 즉 선, 각도, 명도, 음의 고저나 크기 등이 분석된다. 처리수준 이론에 따르면, 깊이가 얇은 수준으로부터 깊은 수준으로 정보처리가 진행되는데 감각분석수준에서 패턴 재인과 관련된 수준으로, 그리고 의미적/연합적 수준으로 정보처리가 진행된다.⁴⁾

디자인의 의미부여에 있어 그 지속성은 약호화(의미덩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환경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각종 생활 장면에서의 과제를 수행해 내는가 하는 물리적 세부 특징만의 분석보다는 의미적 수준, 즉 깊은 수준에서 분석되는 것이 우수한 파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산출하고, 주의하고, 대상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숙련된 행위를 수행하는 심적 현상을 연구해 사용자(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의 물리적 특징 뿐 만 아니라 의미적인 특징, 인간 내면을 자극할 수 있고 확실한 의미덩이를 주입해야 한다.

3. 의미덩이가 디자인에 미치는 파지기간과 영향

-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그 경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모습으로 경험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며, 그래서 혼돈스러운 경

1) <http://my.nation.com>

2) 디자인과 키치/오향섭

3), 4) 인지심리학/학지사

험을 만들어내는 모호한 존재들이 적지 않다.⁵⁾ 이러한 경험에 의해 의미덩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의미덩이가 장기적·단기적인 파지기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치와 가격, 유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1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200명을 대상으로 장기적 파지기간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에 대해 현재 중요시 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와 단기적 파지기간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현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다.

일관된 모습의 경험을 주는 제품들은 장기적인 파지기간으로 영향을 주어야 한다.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는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 형태적인 면과 색상 등을 유행에 민감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과거의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로서의 의미에서 리모델링의 발전으로 가전제품과 가구의 형태나 색이 주거환경과 잘 부합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가전제품이 가구로써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과 동시에 형태적인 면과 색, 사용자와 제품사이의 인간공학적 부분과 주거환경과 제품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강조해야 한다.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는 자동차는 사용자(소비자)의 습관, 취미, 안전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는 과거의 단순히 움직이는 수단이 아닌 사용자의 작업 공간, 휴식 공간, 취미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전, 편안한 공간 창출로 사용자의 파지기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시대에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경험을 주는 이동통신기기는 단기적인 파지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이동통신기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하며 발전한다. 이러한 제품은 형태적인 면과 색상, 구조적 측면에 있어 유행에 민감하다.

과거의 단순한 통화의 의미를 넘어서 현재에는 기술적인 면과 외형적인 면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음악을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 mp3의 기능과 카메라 기능, 메모의 기능 등 과거의 이동통신기기의 범위와 큰 차이가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과거의 단순화된 모형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모형으로 진화 되었다. 예를 들어 카메라 폰의 카메라 위치 역시 회사마다 차이를 보이며 독특한 외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행에 민감한 제품이기에 제품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모델들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신제품에 의한 구제품의 파지기간이 짧아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품의 파지기간이 더욱 짧아진 제품이 많아진다.

따라서 파지기간이 짧은 이동통신기기의 경우 독특한 디자인

과 기능으로 짧은 파지기간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디자인 의미부여의 방법은 사물의 접촉과정과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의해 경험되는 사물의 형·색·질감 등에 의해서 자극되는 미적경험과 관계가 있다.

이 경험은 실제적 기능에서 보다 더욱 주관적일 뿐 아니라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디자인은 실제적인 기능의 강조 뿐 만아니라 인간 내면을 자극할 수 있고, 그로써 확실한 의미덩이를 주입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 파지기간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디자인의 의미부여에 있어 고유의 기능적 특성을 살리며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과 부합되는 환경·공간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기적 파지기간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개성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반면 이미지를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에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파지기간을 점차 늘릴 수 있어야 한다.

파지기간은 그 길이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의미부여에 의한 파지 기간의 지속성은 점차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어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http://my.natian.com>
- 디자인과 키치/오창섭
- 인지심리학/학지사

5) 디자인과 키치/오창섭